

# 비수기에 환율·유가인상 겹쳐 항공업계 2분기 실적 '먹구름'

### 저비용항공사, 탑승률·운임 유지 어려움 전망



항공업계가 여행 비수기, 유가 반등에 몰려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들의 부진 속에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선방하는 구조가 이어지겠지만 2분기는 항공시장의 비수기로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공급을 빠르게 늘려온 LCC들은 탑승률과 운임 유지에 어려움이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4월부터 5월 현재까지 국적 LCC들의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치며 다소 주춤했다.

반면 항공유 가격은 연초 대비

29% 상승해 비용부담은 커졌다. 유류비는 항공사 매출에서 25% 내외를 차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수준의 유가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의 올해 유류비는 각각 3조2000억원, 39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영남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8887억원, 1431억원인데,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연간 이익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3200억원, 39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만큼 항공사들의 수익구조는 유가에 민감하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역시 최근 한달새 5% 상승했다. 유류비, 정비비 등 외화로 지불하는 비용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원화약세는 항공사 수익성을 낮춘다. 또 여행객 역시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해외여행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에도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계절성은 오히려 확대될에 따라 항공사들의 분기 이익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유가와 환율 등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역시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이익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항공사들의 주가는 크게 조정받고 있다. 상장된 항공사들의 시총은 5월 이후 8% 하락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13% 줄었고, 국토부 제재가 장기화되는 진에어의 하락폭이 17%로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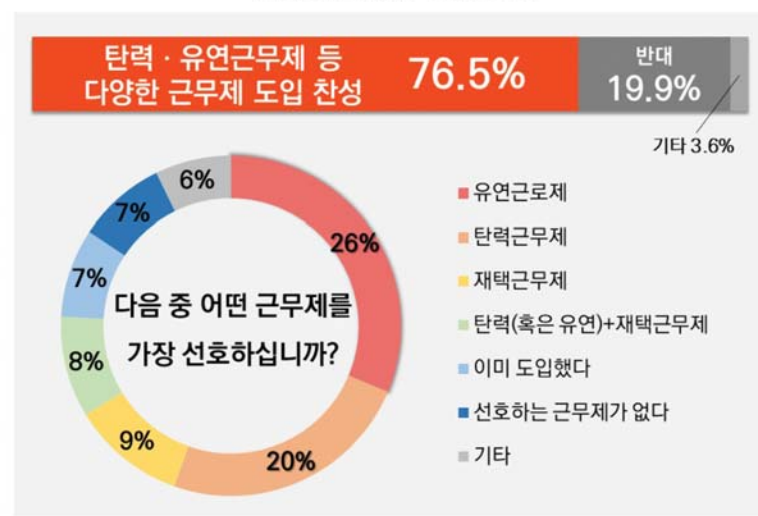
항공업계의 실적 기대감은 하반기에 쏠려있다.

LCC들은 최근 배분받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노선들의 취항을 앞두고 있어 성수기 노선 확대와 기재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등석 폐지·축소, 비수익 노선 운휴 등 현재 진행 중인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들이 하반기 실적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SK 격주 4일제 부러워"

###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 '부럽다!' 주 4일제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SK그룹 일부 계열사가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격주 주일 근무제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리며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해당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

과 직장인의 무려 76.5%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현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본 것인데, 반대의견은 19.9%에 그쳤다.

직장인 유연근무제 선호 가장 원하는 출퇴근 시간 '8시 출근-5시 퇴근' 1위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1위에는 ▲"유연근무제"(38.4%)가

뽑혔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2위에는 ▲"탄력근무제"(26.6%), 3위에는 ▲"탄력(또는 유연근무제)과 재택근무제의 혼합" 형태(12.4%)가 각각 올랐다.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업무량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으로 직장인은 대체로 기본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여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제"는 8.6%로 5위에 올랐다.

한편, 직장인이 가장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은 ▲"8시 출근 5시 퇴근"이 28.4%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다음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 2위(24.9%), ▲"8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17.2%), 그리고 ▲"10시 출근-7시 퇴근"(13.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0%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답한 것을 미루어 보아, 지금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뉴스스

## 대한항공, 200대째 보잉 항공기 'B777-300ER' 도입

### 1971년부터 48년 동안 보잉 제작 항공기 도입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미국 보잉사로부터 B777-300ER 항공기 1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도입한 누적 대수 200대째 보잉사 제작 항공기다. B777-300ER 기종만 으론 25대째 항공기이자, 대한항공

보유 기종 중 최다 운영 항공기이다. 대한항공은 1971년 B707-3B8C 항공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8년간 총 200대의 보잉 항공기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119대의 보잉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도입한 B777-300ER 항공기는 200대째 보잉 항공기를 기념하는 '200th AIRCRAFT' 문구를 기체 앞부분에 래핑해 인친~후쿠오카 노선에 운항을 시작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하노이 등 지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2009년 국내 처음 도입한 B777-300ER 항공기는 291석급 규모의 중대형기다. 기존 항공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26% 줄고 소음도 한층 낮아진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다. 이 항공기에는 코스모스 스위트(일등석), 프레스티지 스위트(프레스티지석), 뉴이코노미(일반석) 등 차세대 좌석들이 장착돼 있다.

뉴스스

## 부동산업 등록 출자 1분기 창업 12% ↓...식당업 계속 줄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발표

올해 1분기(1~3월) 창업기업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1% 줄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창업기업 숫자에 영향을 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창업기업 '창업기업 동향'을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은 32만748개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2.1% 줄었다. 이는 6만4508개로 전체 창업 중 20%를 차지하는 부동산업 등록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3.2% 감소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창업기업 증감은 1.9% 증가로 지난해 같은기간 1.4%에 비해 소폭 올랐다.

숙박·음식점 창업은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1분기 숙박·음식점 창업은 2017년 4만4991개에서 지난해 4만3315개, 올해는 4만3090개로 매년 줄고 있다.

도·소매업 창업기업은 반등했다. 2017년 8만2033개에서 지난해 8만847개로 줄었던 것이 올해 8만

6064개로 늘었다.

법인 창업기업은 지난해 1분기 대비 3.1% 늘어난 2만7231개로 집계됐다.

또 전체 창업 숫자중 그 중 경제력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창업은 5만8694개로 집계됐다. 기술창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통한 창업을 말한다.

뉴스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보혁신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